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

- 자존감에 대한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의 독립적 기여와 상호작용 효과 -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lf-Esteem

박 영 애**
Park, Young Yae
정 옥 분***
Chung, Ock B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nd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are related to children's self-esteem. 440 middle class families consisting of two children and their parents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The research instruments included a childrearing behavior questionnaire, the Sibling Relationships Questionnaire (Furman & Buhrmester, 1985), and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Harter, 1985). Analyses of the data included correlation analysis, canonical correlation, regress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d MANOVA with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as the follow-up test.

The most powerful predictors of children's self-esteem were the Warmth-Acceptance of childrearing behavior and the Warmth-Closeness of sibling relationships. The self-esteem dimension was best predicted by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nd by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was Global Self-Worth. Behavioral Conduct was best predicted by the Rejection-Restriction factor of childrearing, and by Conflict (for boys) and Rivalry (for girls) factors of sibling relationships. Children's self-esteem was related more strongly to the Warmth-Acceptance and the Rejection-Restriction of opposite-sex parents. The effects of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were stronger in same-sex parent-child dyads.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 이 연구는 1995년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한남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accounted for boy's self-esteem better than girl's with the exception of Behavioral Conduct. Sibling relationships accounted for girl's self-esteem better than boy's. The 2x2 MANOVA revealed interaction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and sibling relationships on children's self-esteem. Two factors of Rivalry and Conflict in sibling relationships and all three factors of childrearing behaviors showe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The childrearing factor of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and the sibling factor of Rivalry, which were relatively weak predictors of self-esteem when acting alone, gained power in explaining children's self-esteem within the interactional context.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자존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그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Coopersmith, 1967; Harter, 1983; Wylie, 1979). 이러한 자존감은 자신의 역량 또는 유능함과 자아가치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전달되어지는 타인, 특히 중요한 타인들의 반영적 평가와 자기 행동효과의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사회적 비교과정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이다(Bem, 1972; Harter, 1982; Rosenberg, 1979; Schachter, 1982). 이렇게 볼 때 아동의 자아지각이나 자아평가의 주요 근원은 가족이라고 볼 수 있고 부모와 형제는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 및 자존감의 출현에 중요한 맥락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자존감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생물학적, 유전적인 개인내적 요인을 규명하는 것 이외에 양육행동의 가족간 차이를 중시하는 방식과 가족내에서의 형제간의 차별적 경험에 주목하는 방식이 있다. 흔히 아동연구와 가족연구로 통칭되

는 이 두 부류의 연구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또 분리되어서도 안되는 것임에도(Brody & Endsley, 1981) 불구하고 현재까지 거의 평행선을 이루며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다(Hooper & Hooper, 1990).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대한 부모의 기여와 형제의 기여 역시 최근에 이르기까지 상호 별개의 변인으로 취급되어왔다. 상호보완적인 이 두 접근의 통합 필요성은 아동과 가족 연구의 미래를 진지하게 전망하면서 바람직한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하는 학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정옥분, 1990; Hooper et al., 1990), 이는 자존감 연구에 있어서의 양육연구와 형제연구간 접목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두 부문간 협력 연구가 희소한 주된 이유는 가족내 주요 사회화 담당자로서의 부모의 중요성에 치중한 나머지 인성 및 심리발달에 관한 고전적 이론들이 형제를 주요 사회화 담당자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아 인성발달 및 사회화 또는 동일시 연구 등에서 형제의 기여가 무시되어 왔으며(Lamb, 1982; Zukow, 1989a), 따라서 형제연구가 양육연구에 비해 양적으로나 발전속도 면에서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서구의 형제연구가 제2의 성장기라고 볼 수 있는 도약기로 진입하고 있으나(박영애,

1990, 1991) 아직도 아동의 발달에 대한 부모와 형제의 공동기여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다. 최근에는 가족연구의 초점이 구조변인에서 과정변인으로 이동되고 가족이 상호작용적, 호혜적 관계체계로서 재조명되며(Hooper et al., 1990), 아동을 그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Beavers, 1981; Hinde, 1992). 그리고 형제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고조되어 아동의 사회화에서의 형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Dunn, 1992; Lamb & Sutton-Smith, 1982) 형제도 발달의 맥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들과 연구들이 출현하고 있다(Brody & Stoneman, 1987). 이러한 시점에서 아동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양육과 형제관계의 공동적 기여를 입증하고 부모와 형제 중 어느 하나가 아동의 특정 발달에 작용함에 있어 다른 하나가 불가분의 맥락적 또는 매개적 환경요인으로서 기여하는 그런 상호작용적 또는 상호의존적 측면을 규명해 보는 것은 의의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핵가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한국 가족형태의 압도적 최빈치로 파악된 4인가족(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의 아동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가족구성원 전체를 응답자로 활용하면서 부모와 형제가 아동의 자아지각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환경적 맥락의 항상적인 부분으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시도를 통해 본 연구는 부모의 영향과 형제의 영향을 따로만 보아오던 제한된 시야에서 탈피하여 자아지각의 결정요인들을 보다 거시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양육행동과 형제관계의 상호작용 효과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며, 확인이 되는 경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그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양육과 형제 각 변인의 개별적 활동의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2. 연구문제

전술된 연구의 목적 및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1.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어떠한 양상으로 기여하는가?
 - 1) 아동의 자존감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양육요인은 무엇인가?
 - 2) 양육행동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자존감 요인은 무엇인가?
2. 형제관계는 아동의 자존감에 어떠한 양상으로 기여하는가?
 - 1) 아동의 자존감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형제관계 요인은 무엇인가?
 - 2) 형제관계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자존감 요인은 무엇인가?
3.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는 아동의 자존감에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져오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

부모의 수용, 관심, 참여, 친밀성, 애정 또는 온정성 등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자아개념이나 높은 자존감과 결부되어 있다(Coopersmith, 1967; Gecas & Schwalbe, 1986; Growe, 1980). 부모의 구속적, 거부적 행동, 무관심, 비난, 억압, 통제와 위협 등은 낮은 또는 허약한 자존감과 결부되어 있다(Litovsky & Dusek, 1985; Openshaw, Thomas, & Rollins, 1984). 특히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수용성(Kawash, Kerr, & Clewes, 1985; 김기정, 1984; 고병채, 1990)과 온정성(Richards, Gitelson, Petersen, & Hurtig, 1991) 또는 애정적 태도(김경연, 1987)는 아동의 자존감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심리적 통제(Kawash 등, 1985)나 권위주의적 통제(오순환, 1991) 또는 거부적 양육태도(박정선, 1985; 이희숙, 1984)는 아동의 자존감과 부적상관을 보였고 자율(김기정, 1984)이나 심리적 자율(Steinberg, Elmen, & Mounts, 1989) 또는 부모의 허용성과 느슨한 훈육(Anderson et al., 1989; Hill, 1980; Kawash et al., 1985; Steinberg et al., 1989)은 아동의 자존감이나 자아개념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의 자존감에 대해 부모의 수용 및 온정.애정은 긍정적 효과를, 거부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며 통제는 부정적, 자율은 긍정적인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옴을 의미한다.

그러나 온정과 수용의 효과는 부모와 자녀의 성, 또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Loeb, Horst, & Horton, 1980; Felson & Zielinsky, 1989). 통제도 아동의 자존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거나(Demo et al., 1987; Anderson et al., 1989) 통제의 효과가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Honess & Lintern, 1990)도 제기되었다. 그런가 하면 부모의 통제 자체는 아동의 자존감과 거의 상관이 없고 위압적 행동과 거부, 또는 허용성이 자존감과 부적상관을 가진다는 결과도 있다(Young, 1993). 김경연(1987) 역시 부모의 통제는 아동의 자아존중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고한 바 있다.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도 다양하여 심리적 자율성 허용이 여아에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Kawash et al., 1985)이 있는가 하면 여아는 부모의 지원 및 참여에 더 민감하고 통제/자율허

용에 더 민감한 것은 오히려 남아의 자존감이라는 주장(Gecas et al., 1986)도 있다. 어머니의 애정.수용적 양육태도가 딸의 자아개념과는 높은 상관이 있으나 아들의 자아개념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윤현선, 1984).

부모나 가족의 영향에 대한 수용성 내지는 민감성에 있어서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남아의 자존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Gecas et al., 1986; Hoelter, 1984; Isberg et al., 1989; Medinnus, 1965; Margolin et al., 1988) 양육 변인이나 가족관계의 효과가 남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경우도 있고(Shaw & Bell, 1993; Demo et al., 1987), 아들보다 딸들이 대체로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Richards et al., 1991) 양육행동이 남아보다 여아의 자존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도 있다(Felson et al., 1989; Gecas, 1971; 1972; Openshaw et al., 1984).

부모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해서는 남·여아 모두의 자존감에 대해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크고(Medinnus, 1965) 어머니 양육행동의 지각이 아버지 양육행동의 지각보다 아동의 자존감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보고(Litovsky et al., 1985)와 아버지 양육행동 지각이 아동의 자존감과 더 상관이 높고(Gecas et al., 1986) 보다 높은 자존감 예측력을 가진다는 보고(Bartle et al., 1989)가 대립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비슷하며 부모가 대체로 동등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주장들(Kawash et al., 1985; Felson et al., 1989; Openshaw et al., 1984)도 있다.

부모가 아들과 딸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또는 자존감의 다른 측면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Gecas(1971)는 동성의 부모자녀 간에서 양육행동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한 반면 Richards와 그의

동료들(1991)은 오히려 이성부모를 온정적·지원적이라고 지각하는 경우의 자존감이 더 높음을 발견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지각이나 자아평가에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매우 다양하며 적지않은 상호모순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측정도구에 있을 수도 있고 응답자의 상대적 지위나 구성범위의 차이에 있을 수도 있다. 또는 양육연구에서 간과해 온 다른 주요 변수, 예컨대 형제관계의 개입효과일 수도 있다.

2.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

자아 및 사회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그의 가족 내 형제지위의 지각에서 비롯된다는 주장(Adler, 1928) 이래로 많은 연구들이 주로 형제의 지위변인 효과를 규명해 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출생순위, 형제 성구성, 형제수, 아동의 성, 또는 터울 등의 구조변인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만을 본 것으로서 아동들의 다양한 개인차나 상이한 형제관계 유형에 따른 차이를 기술하거나 그 차이의 발생과정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 형제관계 자체의 이해를 위한 개념모형들이 다원화되면서 형제관계의 결정요인에 가족구조변인과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개별아동의 특성이 포함되기 시작하고(Furman & Buhrmester, 1985a) 형제관계를 개별아동의 기질과 형제유대 및 부모의 자녀관리 책략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설명하려는 시도(Brody & et. al., 1990)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출현한 형제관계 연구들은 대개 두 자녀와 어머니라는 삼자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부모자녀관계의 경험과 형제관계의 경험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단편적으로 입증하는 수준을 넘

지 못하였다(Brody et al., 1987; Corter, Abramovitch, & Pepler, 1983; Stocker, Dunn, & Plomin, 1989).

형제관계의 요인들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물어서 형제 갈등이 청소년의 행동문제 및 낮은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거나(Furman & Buhrmester, 1985a) 형제관계의 온정·친밀성 요인과 경쟁성 요인이 아동의 자존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그리고 갈등요인은 부적상관을 보이고, 상대적 지위·권력요인은 아무 상관도 없음을 발견한 정도이다.

3.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니지만 가족관계적 특성과 형제관계를 동시에 아동의 자존감과 연결시켜 분석해 본 극히 드문 연구중의 하나인 Manning (1989)에 의하면 가족기능 수준이 높은 가족에서는 아동의 자아가치감이 그의 형제관계와 높은 상관을 보여 자존감이 높은 아동은 형제관계의 온정·친밀성이 높았고 갈등이 낮았으며 상대적 지위·권력은 보다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가족기능 수준이 낮은 가족에서는 형제관계가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의 편애는 가족기능 수준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가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중요한 개인변인(자존감)과 관계변인들(가족기능, 형제관계)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모든 분석이 변인들의 하위영역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으로만 이루어져 자존감에 대한 개별변인들의 고유한 또는 상대적인 기여도를 파악할 수가 없고 변인들간 상호작용 효과를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양육행동과 형제관계 연구의 이같은 한계를 넘어서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형제의 상호형성적 영향을 중시하면서 아동의 발달에 대한 부모와 형제의 공동적, 상호작용적 기여의 형태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류계층 두 자녀가족의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직접표집 대상은 서울과 대전지역의 4개 중학교와 3개 국민학교에서 표집된 440명의 아동들이며 그들의 형제 및 부모들을 포함한 176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참여아동은 서울이 560명, 대전이 320명 이고, 중학생이 480명, 국민학생이 400명이었으며 학년은 국민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의 범위에 속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399 가족의 1596명이었고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은 남아가 50.3%, 여아가 49.7% 였고 형제 성구성은 남·남 23.4%, 남·여 24.1%, 여·남 29.7%, 그리고 여·여 22.9% 였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는 고졸이하가 74%, 아버지는 대졸이상인 51%였으며, 직업은 어머니는 전업주부(부업 가진 경우 포함)가 72%, 아버지는 일반 사무직과 자영·상공업이 69%였다(보다 상세한 정보는 박영애, 1995에 제시되어 있음).

2. 연구 절차

자료수집은 사전조사,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3 단계로 이루어졌다. 사전조사는 조사에 사용될 질문지들의 의사전달도 및 반응확득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비조사는 연구변인별 질문지들

의 1차 요인분석을 위한 것으로서 100가족(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조사에서는 질문지가 배부된 440가족 중 417가족으로부터 회수가 되어 그 중 자녀수가 셋 이상이거나 학년 범위를 벗어난 아동이 포함된 가족 또는 편부모 및 무응답 가족등 18가족을 제외한 399가족의 질문지 6384부가 분석되었다. 분석내용별 사례수는 결측치 처리 관계로 분석의 목적과 통계적 요구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지녔다.

3. 측정도구

1) 양육행동척도

척도구성을 위한 개념화 및 문항 선정과 제작 과정에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양육행동 척도들과 아울러 Schaefer(1965a, b)의 차원론적 개념체계 및 하위척도 구성들이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였다(박영애, 1995 참조). 기존의 척도들과 달리 애정·수용, 거부·적대, 통제, 그리고 자유 등의 네 차원들을 두 차원의 양극개념이 아닌 개별적인 양육차원들로 간주하면서 총 122개의 4점 척도 문항으로 시작된 양육행동 척도는 SAS의 주요인 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과 Promax 회전을 거쳐 온정·수용, 거부·체제, 그리고 허용·방임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 80문항 척도로 축소되어 사용되었다(요인분석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박영애, 1995를 참고하기 바람).

양육행동척도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내용들이 누구의 누구에 대한 양육행동을 누가 지각한 것인가에 따라 여섯가지 형태로 제시되었다(박영애, 1995 참조).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열 두명의 석.박사 과정 아동학 전공자들에 의해 검증되었고 신뢰도 및 요인별 내적합치도는 척도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척도전체의 신뢰도는 .81에서 .88의 범위에 속하였고 요인별 내적합치도(α)는

온정·수용이 .93에서 .95, 거부·제제가 .89에서 .92, 그리고 허용·방임이 .73에서 .79의 수준이었다.

2) 형제관계척도

형제관계척도는 Furman과 Buhrmester (1985)의 SRQ(Sibling Relationships Questionnaire)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전공자들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 및 신뢰도와 내적 합치도 등의 검사를 거치고 요인구조 확인을 위한 요인분석을 한 후 사용하였다(박영애, 1995 참조). 척도로서의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추고 있어서 독립 변인이나 종속변인으로서의 형제관계를 측정하는 연구도구로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는(Brody & Stoneman, 1990) SRQ는 네 요인에 16개의 하위척도를 지닌 총 48문항의 5점 척도였다. SAS의 주요인 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에 Promax 회전방식을 사용한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네 요인은 온정·친밀성(Warmth/Intimacy), 갈등(Conflict), 상대적지위·권력(Relative Status/Power), 그리고 경쟁의식(Rivalry)으로서 원척도의 구조와 동일하였다.

형제관계 척도의 신뢰도는 .84였고 요인별 내적합치도(α)는 온정·친밀성이 .93, 형제갈등이 .85, 상대적 지위·권력이 .81, 그리고 편애지각이 .77이었다. 상대적 지위·권력 요인의 일부 문항은 역으로 점수화 하고 경쟁의식(편애지각) 요인의 문항들은 자기편애가 5점, 형제편애가 1점으로 점수화 되었다.

3) 자존감척도

자존감 척도는 Harter의 아동용 자아지각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1985)

를 번안한 것으로서, 역시 전공자들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검사 및 요인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사용한 것이다(박영애, 1995 참조). 자존감의 다섯가지 하위영역에는 학업능력과 운동능력등의 유능성(competence) 판단과 사회적 수용, 신체적 용모, 그리고 행동·품행 등의 자아적절성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이들의 합으로서가 아니고 별도의 개념이면서 이들과 상관을 지니는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번안된 척도의 요인구조는 5가지 하위영역만을 분석하면 Harter(1985)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였고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포함시킨 경우도 소수의 문항들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요인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존감 척도의 점수체계는 4점 척도이며, 척도의 신뢰도는 .89였고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α)는 운동능력 지각이 .85, 학업능력 지각이 .81, 신체지각이 .80,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75, 사회적 수용도가 .70, 그리고 행동·품행지각이 .60이었다.

4. 자료처리

자존감 측정치들에 대해 가장 높은 상관관계와 예측력을 갖는 양육요인과 형제요인을 찾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회귀분석, 다단계 다중회귀분석 및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존감에 대한 양육요인들과 형제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는 MANOVA와 그 사후검증으로 단계식 판별분석을 사용하였고, 유의하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상호작용 효과의 실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자존감 점수의 평균치들을 비교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자존감에 대한 양육행동의 독립적 기여 양상

양육행동의 온정·수용 요인은 거의 모든 자존감 측정치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거부·제재 요인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허용·방임(통제부재) 요인은 대부분의 자존감 측정치들과 거의 상관이 없거나 매우 약한 부적상관의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양육행동의 세 요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자존감 측정치는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사회적 수용도였고, 행동·품행 및 학업능력은 양육의 온정·수용 및 거부·제재 요인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특히 온정·수용은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그리고 거부·제재는 행동·품행영역과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허용·방임은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사회적 수용도에 부적상관을 보였고 행동·품행 및 학업능력 등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박영애, 1995 참조).

이러한 관계 양상은 그것이 누구의 지각을 분석한 것인지에 따라 부모와 자녀, 첫째와 둘째 또는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있었다. 부모가 자신

을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한 것은 아동의 학업 자존감과 가장 상관이 높았는데 자녀가 부모를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한 것은 아동의 자아가치감과 가장 상관이 높았다. 부모가 보고한 자신의 온정·수용성은 둘째자녀의 자존감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고 거부·제재성은 대체로 첫째자녀의 자존감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데 반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제재성은 둘째자녀의 자존감과 더 상관이 높게 나왔다. 부모가 지각한 자신의 허용·방임성은 첫째자녀의 전반적 자아가치감 및 둘째자녀의 사회적 수용도와 가장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으나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허용·방임성은 그와 반대로 나왔다. 뿐만아니라, 부모가 보고한 온정·수용성은 여아의 자존감과 더 상관이 높은 반면 아동이 지각한 온정·수용성은 대체로 남아의 자존감과 더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었다(구체적인 상관계수들 및 형제순위와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는 박영애·정옥분, 1996 참조).

자존감에 대한 양육요인들의 예측력은 부모 중 누구의 양육행동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아동의 지각에 의존한 예측력 분석(표 1)에 의하면 남아의 자존감과 가장 상관이 높은 양육요인은 어머니의 온정·수용(.400)이었고 허용·방임 요

<표 1> 남아와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요인들의 자존감 예측력

예측변수군	정준평가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평가변수군	정준예측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남	아		남	아	
어머니의	온정·수용	.400	.289	전반적 자아가치감	.370	.349
	거부·제재	-.310	-.255	사회적 수용도	.356	.248
	허용·방임	-.045	-.264	운동능력	.159	.139
아버지의	온정·수용	.325	.386	신체·용모	.274	.144
	거부·제재	.215	-.291	행동·품행	.256	.341
	허용·방임	-.134	-.125	학업능력	.303	.207

인은 반대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허용·방임(-.134)이 더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남아의 자존감 측정치 중 양육행동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는 것은 전반적 자아가치감(.370)이었고 그 다음이 사회적 수용도였다. 여아의 자존감 예측력이 가장 높은 양육요인은 아버지의 온정·수용(.386)이었으며 허용·방임 요인은 여아의 경우도 동성부모인 어머니의 허용·방임(-.264)이 더 높은 자존감 예측력을 보였다. 부모의 양육요인들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여아의 자존감은 전반적 자아가치감(.349)과 행동·품행 자존감이었다.

위의 결과는 남아의 자존감은 대체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의해, 여아의 자존감은 아버지에 의해 더 많은 부분이 결정되며 남아와 여아의 자존감 중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더 잘 예측되어 질 수 있는 것은 남아의 자존감임을 잘 보여준다(관련 통계치들은 박영애 등, 1996 참조).

부모자신의 지각을 사용한 정준상관 분석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 있어서 자존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양육요인은 어머니의 온정·수용이었고, 양육요인들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자존감은 학업자존감이었다. 그리고 남아와 여아의 자존감 중 대체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더 잘 예측되는 것은 여아의 자존감임이 밝혀졌다(보다 상

세한 내용은 박영애 등, 1996 참조).

2. 자존감에 대한 형제관계의 독립적 기여양상

아동의 형제관계와 그의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볼 때 양육요인들의 경우보다는 다소 약하게 나왔다. 형제간 온정·친밀성은 양육의 온정·수용성처럼 운동영역을 제외한 모든 자존감 측정치들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형제갈등은 운동 및 사회적 수용도를 제외한 모든 자존감 측정치들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형제간 경쟁의식, 즉 아동 자신에 대한 부모의 편애지각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자존감과 비교적 고른 상관계수를 보였고 모든 자존감 측정치들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 지위권력은 자존감 측정치들과 거의 상관이 없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자존감에 대한 형제관계 요인들의 종합적 예측력은 온정·친밀성이 가장 높고(.216) 그 다음이 형제갈등과 편애지각이었다. 그리고 형제관계가 가장 잘 예측해 주는 자존감 측정치는 전반적 자아가치감(.251)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력은 형제순위와 성별에 따라 달라져서 첫째자녀의 경우는 온정·친밀성 다음이 편애지각이었고 둘째자녀의 경우는 가장 예측력

〈표 2〉 형제관계 요인들의 자존감 예측력

예측변수군	정준평가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평가변수군	정준예측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온정·친밀성	.216	전반적 자아가치감	.251
형제갈등	-.188	사회적 수용도	.183
상대적 지위·권력	-.052	운동능력	.072
편애지각	.184	신체·용모	.175
		행동·품행	.231
		학업능력	.226

이 강한 요인이 편애지각이었다. 남아의 경우는 온정·친밀성 다음이 형제갈등이었고 여아는 편애지각이 으뜸 예측요인이었다. 형제관계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자존감 측정치는 전체아동 및 둘째자녀와 남아 집단에서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이었고 첫째자녀와 여아 집단에서는 행동·품행 자존감이었다(순위와 성별에 따른 정준상관 분석 결과들은 박영애, 1996 참조).

형제관계 요인들의 자존감 영역별 기여도를 보기 위한 다단계 다중회귀분석의 결과(표 3)에 의

하면 일반적으로 아동의 자아가치감과 사회적 수용도는 형제간 온정·친밀성과 편애지각에 민감하였고 행동·품행 자존감은 주로 형제갈등 및 편애지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특히 편애지각은 자아가치감과 사회적 수용도에서는 둘째자녀와 여아의 자존감을, 그리고 행동·품행 및 학업능력 지각에서는 첫째자녀와 여아의 자존감을 더 잘 예측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형제관계는 대체적으로 남아보다는 여아의, 그리고 첫째자녀보다는 둘째자녀의 자존감을 더 잘 예측하였다.

<표 3> 자존감에 대한 형제관계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

	아동전체	첫째자녀	둘째자녀	남 아	여 아
전반적 자아가치감	1*** ¹⁾	1**	4***	1**	1***
	4**		2**		4**
	2**		1*		3*
	.07 ²⁾	.05	.09	.05	.09
사회적 수용도	1***	1***	4***	1*	1***
	4*	3*	1*		4**
	.04	.05	.07	.03	.08
운동능력	4*		3**	4*	
			4**		
	.01	.00	.06	.03	.01
신체·용모	2***	2***	2*	1**	2**
	4*		4*		
	.04	.05	.03	.04	.04
행동·품행	2***	4***	2***	2**	2***
	4***	1**			4**
	1**				1*
	.06	.09	.05	.05	.09
학업능력	2***	2*	2***	1**	2***
	1**	4*	1*		4***
	4*				1*
	.06	.05	.07	.04	.09

1) 1은 온정·친밀요인, 2는 갈등요인, 3은 상대적 지위·권력 요인, 그리고 4는 경쟁의식(편애지각) 요인을 나타냄.

2) 다중회귀분석의 R²임.

3) *P<.05 **P<.01 ***P<.001

3. 자존감에 대한 양육행동과 형제관계의 상호작용 효과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의 각 요인 점수들을 같은 크기의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한 2×2 MANOVA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형제관계의 상호작용 효과

2×2 MANOVA 결과 부모의 온정·수용성은 형제관계 요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형제갈등 및 편애지각과 유의하게 상호작용 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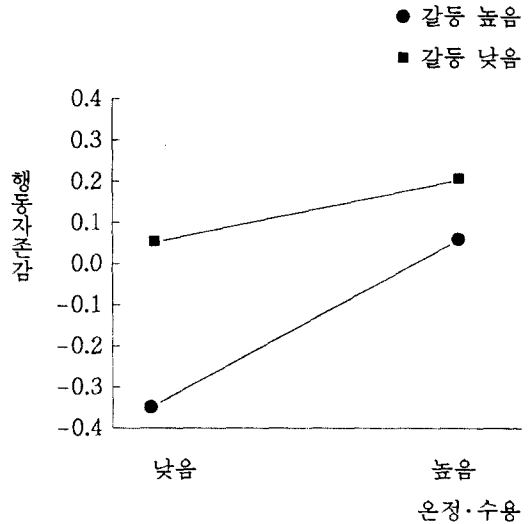
① 온정·수용 × 형제갈등 효과

온정·수용과 형제갈등은 독립적이나 상호작용적으로나 아동의 자존감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이었다(온정·수용 효과: Wilks' $\lambda = .93, P < .001$; 형제갈등 효과: Wilks' $\lambda = .97, P < .01$; 상호작용 효과: Wilks' $\lambda = .98, P < .05$).

여섯 가지 자존감 요인들 중에서 과연 어느 자존감 점수가 그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 사후검정으로 여섯 가지 자존감 측정치들에 대해 단계식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정·수용 × 형제갈등 효과를 가져오는데 주로 기여한 자존감 측정치들은 행동영역 자존감($R^2 = .065, P < .001$)과, 전반적 자아가치감($R^2 = .027, P < .001$) 및 신체자존감($R^2 = .014, P < .05$)으로 나왔다.

온정·수용과 형제갈등의 네 가지 점수조합(하·하/하·상/상·하/상·상)에 따라 실제로 자존감 측정치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기 위해, 그들의 상호작용 효과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행동자존감의 경우를 예로들어 평균치(요인 점수의 평균치임)들을 비교해 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1> 행동자존감에 대한 온정·수용과 형제갈등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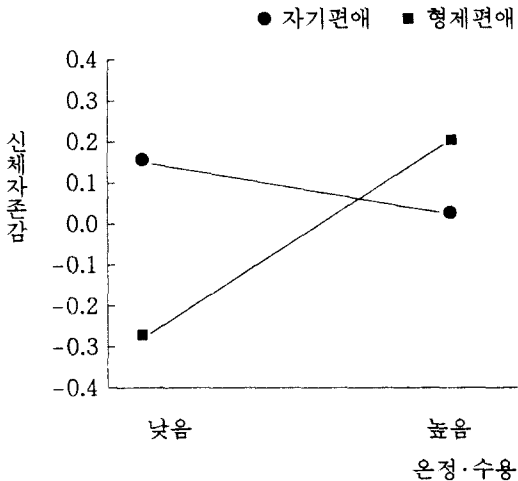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전체아동의 응답을 분석한 경우임.)

<그림 1>에서 보듯이 아동의 행동자존감은 어머니의 온정·수용성이 높고 형제갈등이 낮을 때 가장 높으며 온정·수용이 낮고 형제갈등이 높을 때 가장 낮았다. 형제갈등이 낮을 때 아동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온정·수용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는 않으나 형제갈등이 높을 때는 어머니의 온정·수용성의 영향이 매우 커졌다. 어머니가 온정·수용적일 때는 형제갈등효과는 약화되고 온정·수용적이지 않을 때는 형제갈등 효과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한 요인의 효과가 다른 한 요인의 개입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② 온정·수용 × 편애지각 효과

온정·수용성과 편애지각에 대한 2×2 MANOVA 결과는 Wilks's $\lambda = .98, P < .01$ 이 수준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사후검

증 결과 그러한 상호작용 효과에 크게 기여한 자존감 측정치들은 전반적 자아가치감($R^2=.061, P<.001$)과 신체자존감($R^2=.021, P<.01$) 및 학업자존감($R^2=.015, P<.05$)으로 나왔다. 이들이 과연 온정·수용 편애지각 점수조합에 따라 실제로 어떠한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신체자존감에 대한 온정·수용과 편애지각의 상호작용 효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전체아동의 응답을 분석한 경우임.)

<그림 2>에 의하면 아동의 신체자존감은 온정·수용이 높고 형제편애를 지각하거나 또는 온정·수용이 낮고 자기편애를 지각할 때 가장 높았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기에 비교적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온정·수용적 양육과 자기편애 지각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의 두 조건에서 보다 낮았다. 그리고 온정·수용이 낮고 형제편애를 지각할 때가 가장 낮았다. 일단 자기편애를 지각하고 있을 때는 부모의 온정·수용에 의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온정·수용이 높을 때는 자기편애 보다 형

제편애가 더 높은 신체자존감을 가져왔다. 온정·수용×형제갈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온정·수용의 영향력은 부정적인 형제관계에서 훨씬 컸고 편애지각의 효과는 부정적인 양육행동(낮은 온정·수용) 가운데서 훨씬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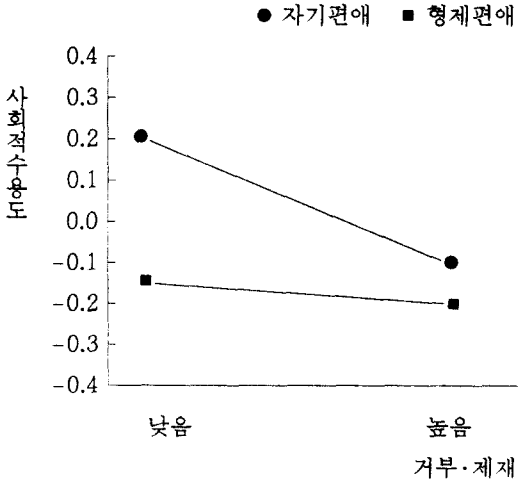
2)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형제관계의 상호작용 효과

① 거부·제재×편애지각 효과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형제관계 요인들 중 특히 편애지각 요인과 강력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상호작용 효과는 아동 전체와 여아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남아보다 여아의 자존감이 거부·제재와 편애지각의 상호작용적 영향을 크게 받음을 보여주었다. 2×2 MANOVA 결과에 의하면 거부·제재와 편애지각은 독립적으로나 상호작용적으로나 아동의 자존감에 유의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그 상호작용 효과는 전체아동의 경우 Wilks' $\lambda=.97, P<.01$ 수준에서, 그리고 여아집단의 경우는 Wilks' $\lambda=.96,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박영애, 1995 참조). 사후검증 결과 거부·제재×편애지각 효과는 주로 행동자존감과 사회적 수용도 및 운동자존감에서 크게 나타났다. 전체아동의 행동자존감은 $R^2=.073, P<.001$ 수준에서, 여아의 사회적 수용도는 $R^2=.035, P<.01$ 수준에서, 그리고 여아의 운동자존감은 $R^2=.041,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네 점수조합 집단별 자존감 평균치들을 비교해 본 결과는 <그림 3> 및 <그림 4>와 같다. <그림 3>에서 형제편애시 거부·제재 수준에 관계없이 사회적 수용도가 낮게 나온 것은 형제편애지각이 특히 여아의 경우 사회적 수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거부·

제재가 높을 때 보다 낮을 때 편애지각의 효과가 증대되는 현상은 뚜렷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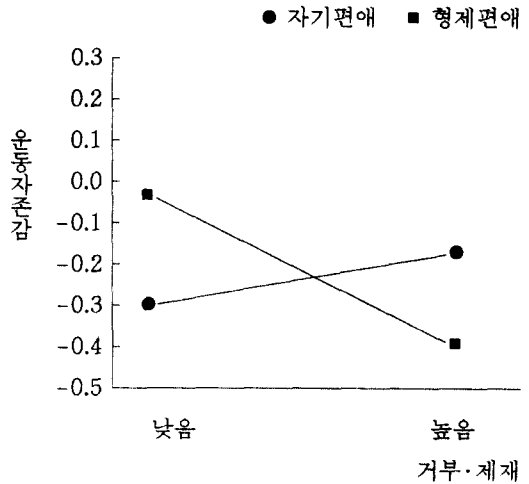


〈그림 3〉 여아의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거부·제재와 편애지각의 상호작용 효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여아의 응답을 분석한 경우임.)

운동자존감의 경우는 신체자존감에서도 그러하였듯이 거부·제재와 편애지각의 상호작용 효과가 다른 자존감들과는 무척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운동자존감은 부모의 거부·제재와 아동의 자기편애 지각이 동시에 높을 때 또는 동시에 낮을 때 가장 높게 나왔다. 즉 두 요인 중 한 가지가 부정적인 상태로 있는 조건에서 더 높게 나왔다. 거부·제재가 낮고 자기편애 지각이 높은 바람직한 조건에서도 전혀 높게 나오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그보다 거부·제재가 높은 상황에서 더 높게 나온 것이 다른 자존감 측정치들의 경우와 대조적이었다.



〈그림 4〉 여아의 운동자존감에 대한 거부·제재와 편애지각의 상호작용 효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여아의 응답을 분석한 경우임.)

다시 말하면 거부·제재가 낮을 때는 자기편애 지각은 운동자존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높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형제편애를 지각할 때는 거부·제재는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자기편애를 지각할 때는 거부·제재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결국 운동자존감에 있어서의 상호작용 효과는 거부·제재와 편애지각의 본래 효과가 부분적으로 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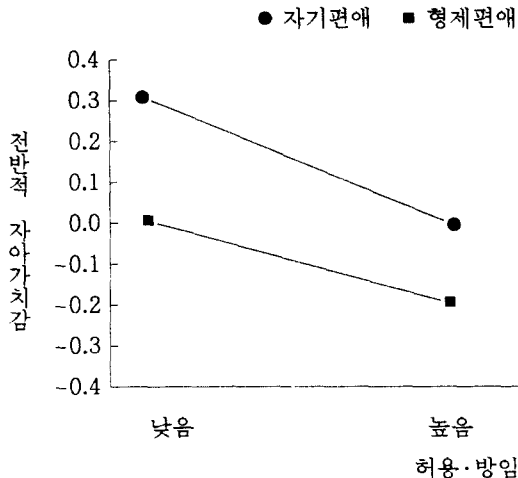
3) 부모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형제관계의 상호작용 효과

① 허용·방임 × 편애지각 효과

허용·방임과 편애지각의 상호작용 효과는 전체 아동 집단과 남아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여아보다 남아의 자존감이 허용·방임과 편애지각의 상호작용적 영향을 크게 받음을 보여주었다. 아동 전체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는 Wilks' $\lambda = .98, P < .01$ 수준에서 유의했고, 남아의 경우는 Wilks'

$\lambda = .96,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들의 보다 구체적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단계식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허용·방임과 형제간 편애지각의 상호작용 효과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자존감 측정치는 아동전체 집단의 경우는 전반적 자아가치감($R^2 = .033, P < .001$)과 학업자존감($R^2 = .018, P < .01$) 이었고 남아집단의 경우는 전반적 자아가치감($R^2 = .051, P < .001$)인 것으로 나왔다. 점수조합에 따른 네 집단별 평균치 비교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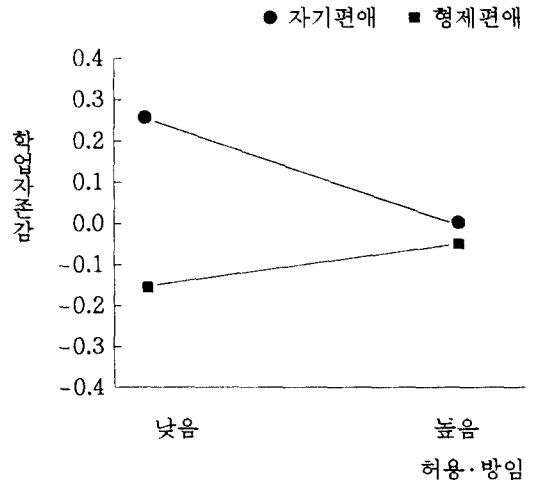


<그림 5>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대한 허용·방임과 편애지각의 상호작용 효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전체아동의 응답을 분석한 경우임.)

<그림 5>에서 보듯이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어머니의 허용·방임성이 낮은 통제적 양육 속에서 자기편애를 지각할 때 가장 높게 나왔고 허용·방임과 형제편애를 동시에 지각할 때 가장 낮게 나왔다. 비록 자기편애를 지각하더라도 어머니가 허용·방임적인 경우는 자아가치감이 현저하

게 낮았다. 자아가치감에 대한 허용·방임의 효과는 편애지각에 관계없이 부정적이었다. 자기편애를 지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통제가 있는 것이 통제조차 없이 허용·방임적인 것 보다는 자아가치감에 덜 부정적이었다.



<그림 6> 학업자존감에 대한 허용·방임과 편애지각의 상호작용 효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전체아동의 응답을 분석한 경우임.)

학업자존감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공통점은 두 자존감이 다 어머니의 허용·방임이 낮고(즉, 통제된 양육 속에서) 아동이 자기편애를 지각할 때 가장 높았고 형제편애를 지각할 때 낮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허용·방임과 형제편애를 동시에 지각하는 것이 자아가치감에는 가장 부정적인 반면 학업자존감에는 통제와 형제편애를 동시에 지각하는 것이 가장 불리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자기편애 속에서는 학업자존감에 대한 허용·방임의 효과가 부정적이거나 형제편애 속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두 요인간 상호작용 효

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 의

1)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모든 자존감 측정치들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가장 높은 자존감 예측력을 보였다. 거부·제재성은 운동영역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자존감 측정치들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비교적 높은 자존감 예측력을 보였다. 허용·방임적 양육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의 자존감과 그다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으나 전반적 자아가치감 및 사회적 수용도와 부적상관을 보였고 세 양육요인들 중 자존감 예측력이 가장 낮았다. 양육요인들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자존감 측정치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아의 경우는 사회적 수용도, 그리고 여아의 경우는 행동자존감이었다.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온정·수용적 양육의 비중있고 긍정적인 기여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나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존감 전 영역에 걸쳐 포괄적이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닌 것이 실제로 입증되거나 강조된 경우는 드물다. 김기정(1984)이 양육태도 중 수용과 자율이 특히 자아개념 전반(학문적, 비학문적)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임을 발견하고 부모로부터의 수용 경험이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의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거부·제재에 대한 결과는 연구간들의 일치도가 비교적 높은 부분이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대부분의 자존감 측정치들과 확실한 부적상관을

보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거부와 위압적 행동이 아동의 자존감과 부적상관이 있음을 발견한 연구(Young, 1993) 및 거부적, 지배적, 또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자아 개념이나 자존감과 부적상관을 보였다는 다른 보고들과 일치하고 있다. 부모의 거부·제재가 아동의 학업자존감과 비교적 높은 부적상관이 있음을 발견한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거부가 아동의 학업자아와 부적상관이 있음을 발견한 DuBois등(199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허용·방임(통제 부재) 내지는 통제의 효과에 관해서는 특별히 연구 결과들간 불일치가 심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제가 아동의 자존감에 거의 상관이 없고 허용성이 자존감과 부적상관을 보였거나(Young, 1993) 통제가 오히려 아동의 자존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들(Anderson et al., 1989; Demo et al., 1987), 또는 방임형 양육이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Steinberg et al., 1994)들과는 어느 정도 부합한다. 그리고 통제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함을 발견한 김경연(1987)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상통하는 바가 있다. 반면에 통제가 허약한 자존감과 결부되고 오히려 느슨한 훈육이 아동의 자존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거나(Hill, 1980; Kawash, Kerr, & Clewes, 1985), 부모의 복종적 태도가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연결된다는 보고들(이희숙, 1984; 박정선, 1985), 또는 허용성 점수가 자아정체감 및 학업성취와 정적상관을 보였다는 보고(Steinberg et al., 1989)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통제의 효과에 관한 부가적 논의는 박영애, 1995 참조).

남아와 여아 중 어느 쪽이 영향을 더 쉽게 또는 많이 받는가 하는 문제는 빈번한 논란과 검증의 대상이 되어온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더 많은 부분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여아가 아니라 남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도 온정·수용성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음이 발견되었다. 이같은 발견은 양육행동이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여아보다 남아의 자존감에 더 크게 영향을 준다거나(Gecas et al., 1986; Hoelter, 1984; Isberg et al., 1989; Margolin et al., 1988; Shaw et al., 1993) 남아의 자존감이 가족관계와 더 강한 상관을 보인다는(Demo et al., 1987) 보고들과는 일치한다. 그러나 아들보다 딸들이 대체로 부모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Richards et al., 1991) 양육행동이 남아보다 여아의 자존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Felson et al., 1989; Gecas, 1971; Kaplan et al., 1972; Openshaw et al., 1984)과는 상반된다. 다만 허용·방임성이 남아보다 여아들의 자존감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여아들의 자존감 중 행동자아 지각이 양육의 영향을 남아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발견들은 후자의 주장들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남아가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는 Gecas 등 (1986)의 고백처럼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위로부터의 반응과 평가에 민감하고 가족 지향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부모의 양육에 의해 실제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 또한, 만약 남아들이 부모의 온정·수용에 덜 민감해 보인다면 이는 남아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아서이기 보다는 행동으로 요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탓일 수 있다. 표현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고서 남아의 자존감은 양육의 온정·수용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판일 수 있으며, 남아 자신들이 보여준 본 연구 결과가 이같은 설

명을 뒷받침해 준다. 또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부모의 양육이나 자신의 자아지각에 대한 여아들의 평가나 보고 자체가 몇 가지 이유에서 남아들의 경우보다 분산도가 낮아서 예측력이 떨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 중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큰가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남아의 자존감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그리고 여아의 자존감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 양육행동의 지각이 아버지 행동의 지각보다 아동의 자존감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보고(Litovsky & Dusek, 1985)와 아버지의 양육방식이 보다 큰 자존감 예측력을 가진다는 주장(Bartle et al., 1989; Gecas et al., 1986)을 부분적으로는 모두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남아 관련 자료들은 어머니 우세론을, 그리고 여아 관련 자료들은 아버지 우세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동성 부모자녀와 이성 부모자녀 관계 중 어느 쪽에서 양육(또는 사회화)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자료를 보면, 남아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온정·수용이 그리고 여아의 자존감은 아버지의 온정·수용이 가장 잘 설명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이성 부모를 온정·지원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자존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Richards et al., 1991)과는 일치하며 어머니의 애정·수용적 양육태도가 딸의 자아개념과는 높은 상관이 있으나 아들의 자아개념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는 보고(윤현선, 1984)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용·방임이 남아의 자존감을, 그리고 어머니의 허용·방임이 여아의 자존감을 더 잘 예측해 준 것은 동성 부모자녀간의 양육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Gecas, 1971)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한다. 부모자녀의 성구성에 따른 양육요인들의 차별

적 효과를 보여준 이러한 결과는 상이한 연구 결과들도 하나의 복합적인 현상의 다양한 단면들일 수 있으며, 그들도 보다 넓은 이해의 틀 속에서는 상충하거나 모순되지 않고 고유한 개별적 기여를 통한 조화와 공존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준다.

2)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

형제관계 요인들 중 자존감 예측력이 가장 큰 것은 온정·친밀성 이었고 형제갈등이 그 다음이었다. 자존감에 대해 온정·친밀성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형제갈등은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자기편에 지각은 모든 자존감 점수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종합적인 자존감 예측력은 온정·친밀성과 형제갈등 다음으로 세 번째였다. 자존감과 형제관계 요인들과의 이와 같은 관계는 동일한 형제관계 척도를 사용한 Manning (1989), Furman(1985a), 그리고 최형성(1992)의 연구 결과들과도 대체로 잘 부합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형제간 온정·친밀성이 높은 자존감 예측력을 보인 것은 양육의 온정·수용성이 아동의 자존감을 가장 잘 예측했던 사실과 합해서 볼 때 아동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자존감 발달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환경적 요인들 중에서 특히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편애지각에 관련된 본 연구의 발견은 부모가 형제를 편애하는 것이 아동에게 정체감 혼란과 부적응 또는 분노와 우울을 야기시킨다는 보고들(Daniels, Dunn, Furstenberg, & Plomin, 1985; Dunn, Stocker, & Plomin, 1990)과 상통하는 바가 있으나 자기편애 지각이 아동의 자존감을 높여 주지는 않았다는 Felson 등(1989)의 보고와는 부분적으로 불일치한다. 편애지각의 효과는 아동의 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남아는 온정·수용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으나 편애에

의해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여아는 편애에 대단히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애정을 형제와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지각하고 경험하는 경향이 남아보다 여아가 더 강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편애지각에 관련된 Felson 등(1989)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형제관계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자존감 측정치는 남아의 경우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학업자존감, 여아의 경우는 행동자존감과 학업자존감이었는데, 이는 여아의 행동자존감이 남아에 비해 부모 및 형제와의 상호작용 경험과 더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며 또한 아동의 학업자존감이 형제관계와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음을 지적해준다.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형제관계 요인들의 전체적 설명력은 여아의 경우가 남아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양육요인들의 자존감 예측력이 남아에게서 더 높게 나온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에 대한 양육의 총체적 효과는 남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형제로 인한 영향은 여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연구와 새로운 해석을 요한다.

3) 자존감에 대한 양육행동과 형제관계의 상호작용효과

본 연구에서 발견된 양육행동과 형제관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양육의 온정·수용 요인과 형제관계의 갈등 요인, 온정·수용 요인과 형제관계의 편애요인, 양육의 거부·체재 요인과 형제의 편애요인, 그리고 양육의 허용·방임 요인과 형제의 편애요인 사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형제갈등과 온정·수용 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행동 및 신체영역 자존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특징은 우선 부모의 온

정·수용이 높을 때보다 낮은 상황에서 형제갈등의 부정적 효과가 훨씬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온정·수용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형제갈등이 아동의 자아가치감과 행동자존감에 더욱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형제갈등이 낮을 때보다 형제갈등이 높은 상황에서 부모의 온정·수용적 행동의 효과가 증폭되었다. 이는 형제갈등이 심할 때 아동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온정·수용성이 필요하며 부모가 온정·수용적이지 못할 때 아동이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제갈등이 적어야 함을 의미한다.

온정·수용과 편애지각과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와 신체 및 학업자존감에서 유의하였다. 온정·수용과 자기편애 지각이 동시에 높을 때, 전반적 자아가치감이나 학업자존감은 더욱 높아졌으며 신체자존감은 그런 조건에서 오히려 낮아지는 반대적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신체자아 지각을 다소 특이한 성질의 자아지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거부·제재와 편애지각 간 상호작용 효과는 아동전체 집단과 여아 집단에서만 발견되었는데, 그 출현양상은 행동자존감과 사회적 수용도, 그리고 운동자존감에서 각각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행동자존감과 사회적 수용도에서는 각 요인의 독립적 효과가 부분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고 운동자존감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들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행동자존감은 자기편애와 형제편애 두 상황 모두에서 거부·제재가 심해질수록 낮아지고 거부·제재가 낮은 한 편애지각에 크게 관계없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아동의 긍정적 행동·품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히 부모가 거부·제재적이지 않아야 함을 말해준다. 사회적 수용도는 아동이

자기편애를 지각할 때는 부모의 거부·제재와 더불어 크게 떨어졌으나 형제편애를 지각할 때는 거부·제재에 관계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특히 형제편애가 사회적 수용도에 불리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운동자존감은 자기편애와 거부·제재를 동시에 경험할 때 높아지는 아주 특이한 양상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운동자존감 역시 신체자존감 처럼 다른 자존감 측정치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면을 지니고 있는 것임을 암시해 준다.

허용·방임과 편애지각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주로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학업자존감에서 나타났다. 아동의 자존감은 허용·방임이 낮고 자기편애를 느끼는 가운데서 가장 높았다. 이는 자기편애를 느끼는 가운데서 부모로부터 오는 통제는 아동에 의해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고 그의 자아지각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이다. 가장 불리한 조건은 자존감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왔는데, 자아가치감은 허용·방임과 형제편애를 동시에 지각할 때 가장 낮았고 학업자존감은 형제편애와 통제를 동시에 지각할 때 가장 낮았다. 즉, 애정도 구속도 없는 상태는 아동의 총체적 자아가치감을 크게 떨어뜨리고, 애정은 없고 통제만 있는 상태는 아동의 학업관련 자존감에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허용·방임이 특히 아동의 자아가치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며 통제는 학업자존감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면 특정 양육요인의 효과는 형제요인의 개입에 의해, 그리고 특정 형제요인의 효과는 양육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자존감 영역에 따라서도 상호작용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된다. 양육행동의 단독 효과만을 다룬 연구들이 보여온 비밀관성이나 불일치의 일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요인별 단독효과와 요인간 상호작용 효과의 차이점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상호작용 효과에서의 편애지각 요인의 광범위한 기여와 허용·방임 요인의 강화된 효과이다. 형제관계의 편애 요인은 세 양육요인 모두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리고 양육의 허용·방임 요인은 본래의 취약성과는 달리 형제관계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동의 자존감에 확실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편애지각은 본질적으로 양육행동의 온정·수용 요인과 무관하지 않으나, 편애라는 개념 자체가 형제가 있음으로 해서만이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의 형제 기여의 한 단면을 잘 드러내 보이는 요인이다. 이처럼 근원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 형제요인으로서 편애지각이 양육요인들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빈도 높게 보인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하겠다. 편애지각이 이처럼 양육행동의 모든 요인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는 발견은 가족기능 수준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부모의 편애는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Manning (1989)의 보고와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허용·방임 요인이 독립적 효과에서보다 상호작용 효과, 특히 편애지각과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더욱 뚜렷한 효과를 보인 것은 허용·방임 요인의 본래적 속성이 온정·수용이나 거부·제재 처럼 명백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학업영역에서 허용·방임요인의 효과가 다른 자존감에서와 달리 본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그와 같은 설명을 뒷받침 해준다.

이처럼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통해 드러난 허용·방임 요인과 편애지각 요인의 활동을 보면 양

육행동과 형제관계는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있어 상호불가분의 사회심리적 환경변인들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들은 아동의 자아형성과 발달이 필연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경험과 형제와의 관계 경험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접근되어야 하는 현상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2.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분석되고 논의된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양육행동의 세 요인과 형제관계의 네 요인이 아동의 자존감에 대해 독립적으로, 그리고 상호작용적으로 기여하는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자존감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양육의 온정·수용성과 형제관계의 온정·친밀성이고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에 의해서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자존감 측정치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이며, 부모의 거부·제재 및 형제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은 주로 아동의 행동·품행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남아도 양육의 온정·수용성과 형제관계의 온정·친밀성에 의해 여아 못지 않게 크게 영향을 받고 여아는 남아보다 편애에 훨씬 민감하며, 전체적으로 볼 때 양육행동의 자존감 예측력은 남아에게서 더 높고 형제관계의 자존감 예측력은 여아에게서 더 높다.

셋째, 종합적으로 볼 때 남아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더 상관이 높고 여아의 자존감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더 상관이 높으나 단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동성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크다.

네째, 양육행동과 형제관계는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동의 자존감에 유의한 차이들을 발생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육행동의

세 요인인 인정·수용, 거부·제재, 그리고 허용·방임은 특히 형제관계의 편애지각과 더불어 자존감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허용·방임과 편애지각은 독립적으로는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상호작용 속에서는 보다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는 요인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자존감과 신체자존감은 나머지 자존감 측정치들과는 다른 다소 특이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양육행동과 형제관계의 상호작용 효과 가운데서 특히 그와 같은 측면이 잘 드러난다.

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시도될 수 있는 과제들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추가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에 대한 양육행동과 형제관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해 본 관계로 그 일차적인 분석으로 양육요인 하나와 형제요인 하나 간의 1:1 상호작용(2×2 MANOVA)만을 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양육요인 둘과 형제요인 하나 및 형제요인 둘과 양육요인 하나 간의 상호작용 효과들을 3-way MANOVA를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양육요인들간 및 형제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 뿐만이 아니라 부모간 또는 형제간의 여러 가지 점수조합에 따른 다양한 상호작용 효과의 분석도 가능하다.

셋째, 요인점수를 상·하 두 집단으로만 나누지 말고 상·중·하로 구분하여 점수가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경우, 또는 중간 수준의 경우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네번째 제언은 형제간의 차이에 관련된 것이다.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의 지각이나 자존감에 있어서 한 가정의 형제들도 서로 다른 가정의 아동들 못지 않게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형제간의

차이를 단순히 형제 순위에 따른 집단적 차이가 아닌 형제가 실제로 체험하는 차이로 파악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병채(1990). 자아개념, 귀인성향,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상호관계 및 그 변인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자아존중·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1990). 미국 동기관계 연구의 최근동향 -기본인식과 접근방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47-162.
- 박영애(1991). 동기관계 연구의 현황분석 -미국 연구의 요인별 분석-. 한남대학교 논문집 21, 319-346.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1996). 아동의 형제관계와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2호(예정).
- 박영애, 정옥분(1996).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1호, 321-340.
- 박정선(1985). 모의 직업 및 지각된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순환(199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 과 아동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윤현선(1984).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희숙(1984). 자녀가 지각한 부친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옥분(1990). 정서·사회성 발달. 대한가정학회 편저, 가정학 연구의 최신 정보 II : 아동학. 가족학, 제4장, 74-94, 교문사.
- 최형성(1992). 아동이 지각하는 형제관계와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형태-199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 Adler, A.(1928). Characteristics of the 1st, 2nd and 3rd child. *Children*, 3(Issue 5).
- Anderson, M., & Hughes, H. M.(1989). Parenting attitudes and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0, 463-465.
- Bartle, S. E., Anderson, S. A., & Sabatelli, R. M.(1989). A model of parenting style, adolescent individua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Preliminary finding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4, 283-298.
- Beavers, W. R.(1981). A systems model of family for family therapis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299-307.
- Bem, D. J.(1972). Self-perception theory.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6). New York: Academic.
- Brody, G. H., & Endsley, R. C.(1981). Researching children and families: Differences in approaches of child and family specialists. *Family Relations (Family Coordinator)*, 30, 275-280.
- Brody, G. H., & Stoneman, Z.(1987). Sibling conflict: Contributions of the siblings themselves, the parent-sibling relationship, and the broader family system. In F. F. Schachter, & R. K. Stone,(Eds.).(1987). *Practical concerns about siblings: Bridging the research-practice gap.* New York: Haworth Press.
- Brody, G. H., & Stoneman, Z.(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I. E. Sigel & G. H. Brody(Eds.), *Methods of family research: Biographies of research projects: Vol. 1. Normal families*(pp. 189-212). Hillsdale, NJ: Earlbaum.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rter, C., Abramovitch, R., & Pepler, D. J. (1983). The role of mother in sibling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4, 1599-1605.
- Daniels, D., Dunn, J., Furstenberg, F. F., & Plomin, R.(1985). Environmental differences within the family and adjustment differences within pairs of adolescent siblings. *Child Development*, 56, 764-774.

-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05-715.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 Dunn, J.(1992). Sisters and brothers: Current issues in developmental research. In F. Boer & J. Dunn(Eds.),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
- Dunn, J., Stocker, C., & Plomin, R.(1990). Nonshared experiences within the family: Correlates of behavior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 113-126.
- Felson, R. B., & Zielinski, M. A.(1989). Children's self-esteem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727-735.
- Furman, W. & Buhrmester, D.(1985a).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Furman, W., & Buhrmester, D.(1985b).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qualities of their sibling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6*, 448-461.
- Gecas, V.(1971). Parental behavior and dimensions of adolescent self-evaluation. *Sociometry, 34*, 466-482.
- Gecas, V., & Schwalbe, M. L.(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Growe, G. A.(1980). Parental behavior and self-esteem in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47*, 499-502.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275-385). New York: Wiley.
-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Hill, J. P.(1980). The family. In M. Johnson (Ed.), *Toward adolescence: The middle school years*. The Seventy-nin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nde, R. A.(1992). Developmental psychology in the context of other behavioral sci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018-1029.

- Hoelter, J.(1984). Relative effects of significant others on self-evalu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 255-262.
- Honess, T. M., & Lintern, F.(1990). Relational and systems methodologies for analys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An exploration of conflict, support and independence in adolescence and post-adolescen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331-347.
- Hooper, F. H., & Hooper, J. O.(1990). The family as a system of reciprocal relations: Searching for a developmental lifespan perspective. In I. E. Sigel & G. H. Brody(Eds.), *Methods of family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Isberg, R. S., Hauser, S. T., Jacobson, A. M., Powers, S. I., Noam, G., Weiss-Perry, B., & Follansbee, D.(1989). Parental contexts of adolescent self-estee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1-23.
- Kawash, G. F., Kerr, E. N., & Clewes, J. L.(1985). Self-esteem in children as a function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The Journal of Psychology*, 119, 235-242.
- Lamb, M. E.(1982). Sibling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span: An overview and introduction. In M. E. Lamb and B. Sutton-Smith(Eds.). *Sibling relationships: Their nature and significance across the lifespa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Lamb, B. E., & Sutton-Smith, B.(Eds.). (1982). *Sibling relationships: Their nature and significance across the lifespan*. Hillsdale, NJ: Erlbaum.
- Litovsky, V. G., & Dusek, J. B.(1985). Perceptions of child rearing and self-concept develop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373-388.
- Loeb, R. L., Horst, L., & Horton, P. J. (1980).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ssociated with self-esteem in preadolescent girls and boys. *Merrill-Palmer Quarterly*, 26, 205-217.
- Manning, P. C.(1989). Family functioning, sibling relationships, and a child's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 Margolin, L., Blyth, D. A., & Carbone, D. (1988). The family as a looking glass: Interpreting family influences on adolescent self-esteem from a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8, 211-224.
- Medinnus, G. R.(1965).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150-154.
- Openshaw, D. K. Thomas, D. L., & Rollins, B. C.(1983). Socializa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Symbolic interaction and social learning explanations. *Adolescence*, 18, 317-329.
- Openshaw, D. K., Thomas, D. L., & Rollins,

- B. C.(1984).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 259-274.
- Richards, M. H., Gitelson, I. B., Petersen, A. C., & Hurtig, A. L.(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65-81.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chaefer, E. S.(1961). Multivariate measurement and factorial structure of children's perceptions of maternal and patern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16, 345-346.
- Schaefer, E. S.(1965a).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chaefer, E. S.(1965b).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52-557.
- Shaw, D. S., & Bell, R. Q.(1993). Developmental theories of parental contributors to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 493-518.
- Steinberg, L., Elmen, J., & Mounts, N.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soci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 1424-1436.
- Steinberg, L., Lamborn, S. D., Darling, N., Mounts, N. S., & Dornbusch, S. M.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754-770.
- Stocker, C., Dunn, J., & Plomin, R.(1989). Sibling relationships: Links with child temperament, maternal behavior, and family structure. *Child Development*, 60, 715-727.
- Wylie, R. C.(1979). *The self-concept: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Vol. 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Young, M. H.(1993). Parenting style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 longitudinal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Ann Arbor MI: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 Zukow, P. G.(1989). Siblings as effective socializing agents: Evidence from Central Mexico. In P. G. Zukow(Ed.). *Sibling interaction across cultur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New York: Springer-Verlag.